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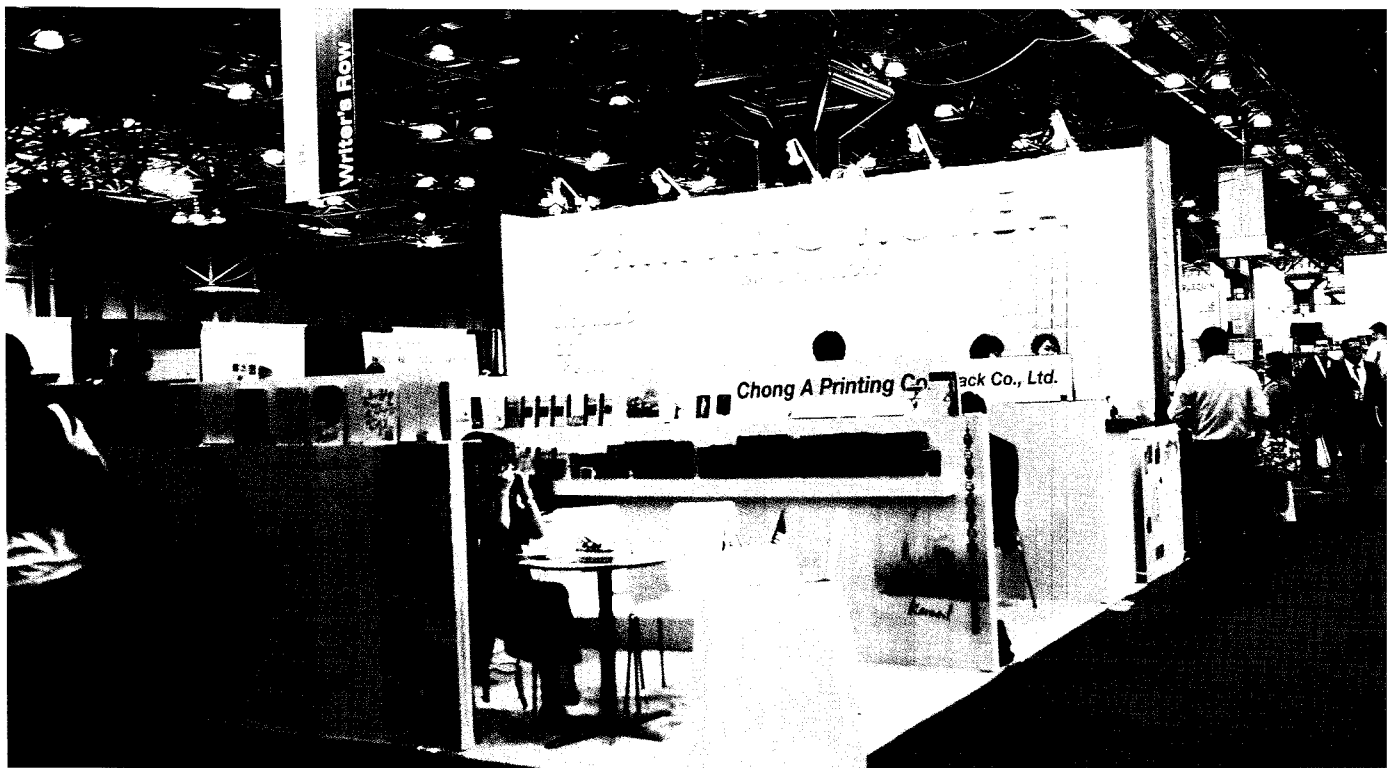
인쇄수출지원센터 설립 1년 인쇄물 수출을 지원하는 믿음직한 가이드 해외전시회 참가, 인쇄문화 홍보 등 활발한 활동

인쇄사들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초 대한인쇄문화협회 내에 개설된 인쇄수출지원센터가 7개월여 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쳐 인쇄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설립 첫해를 마감한다. 내년에는 더욱 활발하고 넓은 범위에서의 활동을 예고하고 있는 인쇄수출지원센터의 설립 첫해의 활동을 소개하고 인쇄수출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의의와 기능에 대해 소개한다.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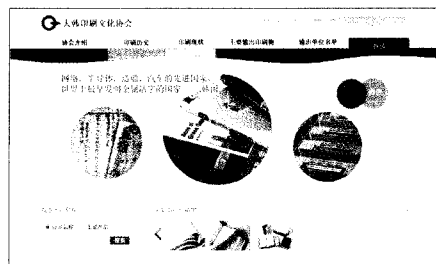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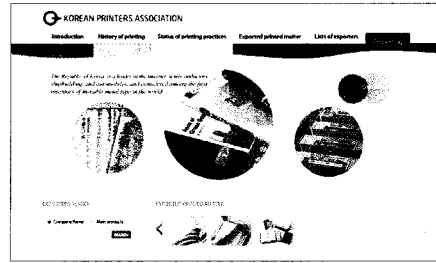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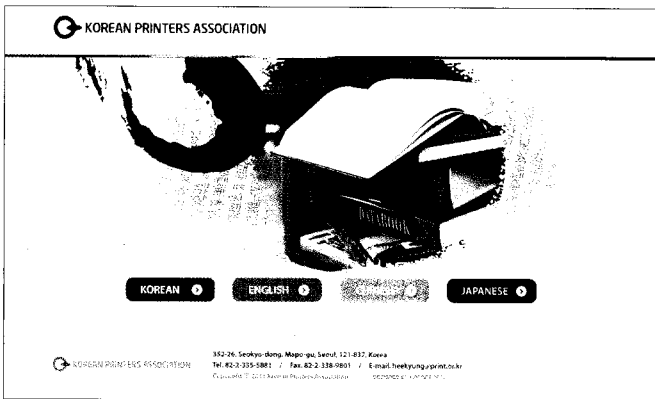
규모 비해 수출 실적 미미한 인쇄산업

국내 인쇄물 수출은 지난 2009년 약 2억 5천만 달러에서 2010년 약 3억5천만 달러로 40%의 급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수출액이 워낙 적었던데 따른 착시현상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1억 달러는 국내 인쇄산업 생산액에 비하면 1%수준에 그치는 적은 액수이지만 수출이 2억 달러 정도에 그치다 보니 40%라는 높은 성장을 한 것으로 잘못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인쇄산업의 생산액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동떨어진 수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인쇄산업의 특성상, 내수를 위주로 하는 성향이 강하고 소규모 및 영세업체들이 많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쇄물의 생산액이 9조원을 넘어서는 것에 비해서 3억5천만 달러의 수출액은 약 4 천억 원에 불과해 내수의 1/25에 불과한 것이어서 역설적으로 보면 앞으로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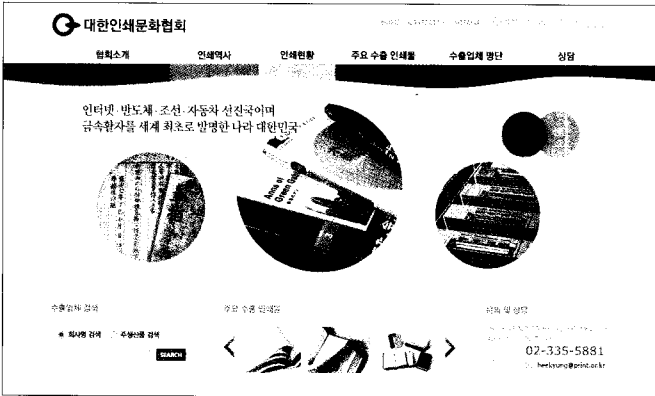


이처럼 인쇄물 수출이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인쇄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거나 소규모여서 자체적으로 복잡한 수출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제약요소들이 많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하여 수출확대를 하고 싶어도 벽에 부딪치고 있다. 인쇄수출지원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대한인쇄문화협회 내에 설치, 인쇄물 수출 종합지원을 위해 수출상담, 해외 시장 현황분석, 정보수집,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 홍보 등 원활한 윈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차이나프린트, 북엑스포아메리카 등 해외전시회 참가 및 한국인쇄관 조성을 통한 해외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했으며 이달 1~3일에는 일본 동경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일본으로 수출 확대를 적극 타진하게 된다.

● 기획3 인쇄수출지원센터 1년



해외를 대상으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4개 국어로 인쇄수출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인쇄수출지원센터가 하는 일

인쇄수출지원센터는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홍보물 책자발간, 인쇄물 수출의 해외홍보, 해외인쇄전문매체 광고게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바이어초청 상담회 개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쇄수출지원센터의 지원대상이 되는 해외전시회는 프린트차이나(중국), 동경 북쇼(일본) 등 아시아지역과 프랑크푸르트도서전(독일), 아이펙스(영국) 등 유럽지역, 북엑스포아메리카(미국) 등 아시아, 유럽, 미국 등 주요 수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 매체 홍보 및 홍보물 발간은 국내의 우수한 인쇄문화와 기술을 담은 영문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미국, 일본, 유럽지역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지역의 인쇄출판매체에 국내 인쇄문화산업과 관련한 홍보를 수차례 진행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제인쇄산업전시회와 연계하여 인쇄물 수출증진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 국내 인쇄산업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인쇄문화산업 현황조사 및 자료집 발간 등의 사업을 이미 시행했거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업체 겨냥한 홈페이지 구축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인쇄수출지원센터의 홈페이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4개 국어로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인쇄수출지원센터의 홈페이지(www.printkorea.or.kr)는 국내 우수 인쇄물을 홍보하고 수출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 컨셉으로 하였으며 협회소개, 인쇄역사, 인쇄현황, 주요 수출 인쇄물, 수출업체 명단, 상담 등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인쇄역사는 한국의 인쇄역사연표와 세계인쇄문화연표로 구분되어 있으며, 특히 세계인쇄문화연표는 한국과 세계의 인쇄역사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한편, 인쇄현황에는 한국의 인쇄현황과 인쇄물/인쇄기기 수출현황으로 구분되어 있다. 수출업체 명단에는 우리나라 인쇄 및 관련업체 80여 곳의 업체명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이 소개되어 있다.

2011년 주요 해외 전시회 참가와 실적



대륙의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한 <프린트차이나>

지난 4월 9일부터 13일까지 중국 광저우 광동현대국제전시장에서 열린 프린트차이나에 참가했다. 프린트차이나는 12만㎡의 규모에 18개국 1261개사가 참가했으며, 70개국 12만 명이 전시장을 찾았다. 베이징국제인쇄기술전시회의 자매전시회로 차이나프린트와 번갈아 매 4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인쇄기 전시회로서는 중국 최대, 세계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전시회다.

올해 한국인쇄문화종합관은 66㎡규모에 한국인쇄문화관, 참가사개별관, 키페스 홍보관, 상담 및 휴게실로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했다. 특히 한국인쇄문화관은 우수 인쇄물 및 위탁전시업체 브로슈어 전시 및 수출 상담과 함께 한국인쇄문화 홍보 및 고인쇄 체험 시연을 진행했다.

직접 참가업체는 기선(주), 메탈스틱(주)피에스텍 3개사가 직접 전시, 22개 사가 위탁 전시했다. 상담건수는 120여 건에 달했으며 상담실적은 약 80만 달러에 달했다. 또한 중국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대리점 계약이 이뤄지기도 했다.



최대의 인쇄물수출 시장에서 열리는 <북엑스포아메리카>

지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 자비츠센터에서 열린 북엑스포아메리카에 참여했다. 북엑스포아메리카는 3만8천㎡ 규모에 50개국 1200여 업체가 참가했으며 2만1664명이 방문해 북미 최대 규모의 출판관련 전시회이다. 미국, 캐나다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출판업계 종사자가 전시, 방문하는 전시회다. 뉴욕, LA, 시카고, 워싱턴DC 등 미국 주요도시를 번갈아가면서 개최되고 있으며, 2013년까지는 뉴욕에서 개최된다. 한국인쇄문화종합관은 36㎡규모에 패널을 활용한 한국인쇄문화 홍보, 영문 홍보물 배포, 위탁전시업체 홍보물 전시 및 수출상담 대행, 한국인쇄홍보 및 시연 등을 진행했다. 직접 참가업체는 (주)글로벌프린트팩, 두산동아(주), 청아문화사, 팩컴코리아(주), (주)해머아트 5개 사였으며 22개 사가 위탁 전시했다. 상담건수는 40여건으로 상담실적은 70만 달러에 달했다.



세계 최대의 도서전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지난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2011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이 열렸다. 세계 110여 개국, 7천여 개사가 참여하며 28만여 명이 참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전이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단순한 도서전을 벗어나 각종 세미나, 예술 공연, 작가와의 대화, 입체적인 주빈국 행사 등이 벌어지는 파급력이 큰 종합적인 이벤트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전시회에 대한인쇄문화협회는 한국의 우수한 인쇄문화를 패넬로 소개했다. 영문 홍보물을 비치, 배포하여 실질적인 해외 홍보를 도왔으며 위탁 전시업체의 홍보물과 전시물을 업체별로 수출 상담을 대행 했다. (주)글로벌프린트팩, 청아문화사, (주)타라티피에스, (주)아시아프린팅이 직접 참가했다. 위탁참가업체는 23개 업체였으며 상담건수 100여건으로 상담실적은 130만 달러를 기록했다.

시장개척단 파견, 다양한 해외 홍보 등 전개

인쇄수출지원센터는 한국인쇄역사의 해외홍보 및 국내 우수 수출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영문판 소개 책자 및 CD를 발간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80여개 기업의 해외홍보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코트라 해외지부의 도움으로 100여개 Korea Business center에 비치되어 해외 바이어에게 전달되고 있다. 대한인쇄문화협회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일본 도쿄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며 현지에서 한국 인쇄업체들이 우수한 인쇄 기술 및 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친환경 잉크와 종이를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인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시장개척단에는 국내 8개 업체가 참여하며, 일본에서는 35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인쇄업계 단독으로 진행, 해외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